

[영국] 유기농 식품 판매 감소 두드러져

영국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대표적인 유기농 인증 단체인 토양 협회 (Soil Association)가 발간한 '2012 년 유기농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기농 식품산업은 2010 년 8.8% 성장을 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며 전반적인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유기농 식품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2011 년 영국의 유기농 식품 시장은 1.67 십억 파운드 (한화 약 3 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토양 협회는 밝혔다.

이 협회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 중 하나는 영국 소매업체들이 유기농 식품에 대해 투자하지 않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저조한 투자는 다른 유럽 내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 소매업체들은 유기농 식품의 가지 수와 진열공간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자체 상표에 대한 투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타 유럽 시장은 유기농 시장이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유기농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과 혁신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한데, 영국의 대표적인 업마켓(Upmarket) 소매업체인 웨이트로즈 (Waitrose)를 제외하면 유기농 제품에 투자하는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협회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 구입이 어떠한 면에서 이로운지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도 영국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한편 영국 내 유기농 식품 생산 및 가공업체 수가 유기농 경작 면적과 함께 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국의 유기농 시장 감소 추세에서도 시장 변동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이 발견되고 있다. 유기농 유아 식품 판매량은 6.6%, 양고기를 포함한 유기농 육류 판매량 16%, 유기농 가금류 5.8%, 유기농 버터 판매량은 9.4%가 증가했다.

유기농 시장에서 유제품은 29.2%, 야채와 과일을 포함한 신선 농산물은 22.9%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0 년 이후 2 년 연속으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기농 식품 판매경로의 71.4%를 차지하고 있는 다점포 소매업체에서의 유기농 식품 판매가 5% 감소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자료 제공: www.foodmanufacture.co.uk